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

허윤정
(서울대학교)

〈차례〉

1. 서론
2. 본론
3. 결론

【국문초록】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가졌던 거문고는 20세기에도 여전히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작음악의 발전 속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해 왔다. 21세기 들어 거문고의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창작곡에서 많은 연주기법이 개발되었고, 전통음악 내에서도 그 쓰임새를 확장해 왔다. 또한 최상의 음질 구현, 음량의 확대, 음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악기구조와 재료의 개량을 다각도로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거문고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전자음향과의 접목이 눈에 띄는데 결합의 형태와 방법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활동배경과 음악적 효과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거문고는 독주악기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음과 고음의 조화로 반주와 독주가 가능하며, 타악적인 특성이 강하고 다양한 음색으로 인한 주법 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무대에서 연주 시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악기이다. 이것은 다른 악기와는 협업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거문고 음악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사용 시 발생하는 역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던 거문고는 21세기 들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악기에 맞는 amplifier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음악을 만들어서 거문고

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연주자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창작곡과 주법들을 만들어내어 거문고의 원형성과 전자 시스템(마이크, 컴퓨터 시스템 및 다양한 이펙터 등)의 조화로운 작업을 통하여 좋은 음악적 컨텐츠들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문고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고, 독주악기로서, 앙상블 악기로서, 협업에 강한 악기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거문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국제교류의 플랫폼들이 열리고 세계무대의 최전방에서 소규모 국악앙상블과 독주자들이 활약하면서 개성이 강한 거문고가 그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러한 일렉트로닉과의 결합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주제어】 거문고, 일렉트로닉, 실험, 확장, 세계화

1. 서론

거문고는 가야금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현악기이다. 고구려 왕산악에 의해 한반도에 모습을 나타낸 뒤 여러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 모습이 남아 있는데, 악기의 형태가 현재 전해 내려오는 거문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방형의 몸통에 16개의 꺾과 3개의 안죽이 있고 굽고 가는 6현의 줄이 얹혀 있다.¹⁾ 연주 방법은 왼손을 꺾 위에 얹고 오른 손에는 대나무로 된 술대를 쥐고 현을 뜯거나 내리치는데 이때 거문고 대모²⁾에 술대가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타악기 소리 같다. 그리고 왼손으로 꺾을 비빌 때 줄과 꺾의 나무가 마찰되며 나는 소리, 술대를 사용하지 않고 왼손가락 만으로 줄을 내려치거나 뜯어서 내는 자출(自出) 소리, 3줄의 개방현을 이용한 드론(drone)효과, 가늘고 굽은 현의 옥타브 차이로 동일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등 거문고는 악기의 구조와 연주법에 있어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진 악기이다.

1) 거문고의 여섯 현은 순서대로 일정하게 굽어지거나 가늘어지는 zither류 악기의 보편적 구조와는 다르다. 즉 현의 굽기가 1현~6현까지 일관되게 가늘어지거나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3-6-1-2-4-5의 굽기 순서대로 불규칙하게 얹혀 있는데 각 현의 굽기 차이도 일률적이지 않고, 굽은 현이 3줄, 가는 현이 3줄로서 음양의 조화를 드러내어 음색 대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악기이다.

2) 술대가 닿는 거문고의 윗 부분으로 거북이 등껍질을 뜻함.

거문고는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담당해 온 악기로서³⁾ 20세기에 이르러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작음악을 통한 발전 속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해 왔다. 20세기는 전통의 계승과 보존이라고 하는 대의에 집중하며 여러 제도들을 정착시켜 간 시기였다. 대학교 국악과 설립을 통한 국악 교육 체제의 확립, 무형 문화재 제도,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원 등 국가 기관을 통한 전통음악의 안정적 전승, 이와 더불어 국악관현악단의 등장⁴⁾으로 인한 국악 연주계의 확장과 창작음악을 통한 대중화의 토대 마련 등 전승과 보존에서 시작하여 대중화의 화두가 짝 뜨게 되는 시기였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 정책에서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의 구호가 1994년 “국악의 해”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안되었다. 즉 안으로는 생활 속의 국악을 고민하고 바깥으로는 국악이 문화외교의 선발대 역할로서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며 이를 위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본격적으로 모색해보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정책적으로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에 방점이 찍히며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외 무대에 진출한 개성 있는 연주자들의 활약과 성과들이 더욱 가시화되는 시기가 바로 21세기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21세기 들어 더욱 다변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의 음악 시장 특히 해외공연계로부터의 적극적인 호응과 요구에 대하여, 국악은 독주자나 소규모 앙상블의 주도하에 발 빠르게 반응하며 새로운 음악들을 생산해 내었다. 이런 음악환경 가운데 유독 거문고에 있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전자음향과의 접목이 눈에 띄는데 그 결합의 형태와 방법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활동 배경과 음악적 효과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3) 고구려, 신라, 고려를 거치며 거문고는 가야금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요한 현악기로 자리매김하였고 조선 시대에 이르러 유교의 예악사상을 구현하는 핵심 악기로서 백악지장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조선중기부터 후기까지 예도적 음악의 산물인 정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거문고 음악의 전성기를 맞는다. 이후 20세기 초 백낙준에 의해 거문고 산조가 만들어 지면서 거문고는 정체성의 일대 혁명을 이루게 되는데, 선비들의 전유물과 같던 거문고가 민속음악의 중요한 기악 독주음악 ‘산조’를 연주하게 됨으로써 이후 20세기 전통음악 근대화의 흐름 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4)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1963년 총 54명의 단원으로 출범하였다.

거문고의 일렉트로닉을 활용한 접목은 독주 위주의 개인 연주자와 전자 거문고 앙상블의 탄생 그리고 밴드 형태의 앙상블에서 거문고의 새로운 역할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접목의 시도들은 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음악 형태의 변화와 함께 거문고 연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이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연주자와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의 거문고가 실험하고 있는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이러한 거문고의 다양한 시도와 변신이 전통음악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거문고와 일렉트로닉 결합의 배경

20세기 후반, 국악의 현대화·대중화에 있어 국악관현악단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국악의 한 축과 함께 1980년대 이후 퓨전국악⁵⁾이라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었다.⁶⁾ 밴드형태의 국악그룹과 가야금 앙상블 등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들을 통해 국악계 밖의 무대⁷⁾로 국악공연이 확장되었고, 국악 대중화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
- 5) 국악과 다른 장르의 음악, 악기를 섞어 만든 대중적인 음악의 소규모 국악앙상블을 지칭하는 '퓨전국악'이라는 관습적인 용어의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지 않겠다.
- 6) 1985년 창단된 국악그룹 '슬기둥'은 퓨전국악이라 불리는 대중적인 국악을 만들어 본격적인 공연활동을 한 실내악 팀으로서 퓨전국악의 음악적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7) 국립국악원이나 문화재보호재단 산하의 전문 국악공연장을 비롯한 각 시, 도 국악관현악단과 민간 국악관현악단들이 속해 있는 공연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연주되는 국악 공연들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국악계(공연에 한하여)라고 통칭하여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혼합된 형태의 퓨전국악이라 불리는 연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거문고는 나름의 다양한 창작 독주곡과 앙상블 음악들로 변화를 모색하며 레퍼토리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대중화를 표방한 퓨전국악밴드 형태의 음악에서는 거문고리는 악기가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 또한 국악관현악에서 25현 가야금 그리고 아쟁과 비슷한 음역대라는 단순한 이유로 음악적 역할이 축소되고, 악기 연주 시 술대질과 패비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소리(시끄러움)들로 인해 거문고의 위상은 점진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악기 개량의 다양한 논의와 시도과정에서 거문고 개량에서는 뚜렷한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고⁸⁾ 대중화의 흐름에도 적극적으로 합류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극장 공연이 상시화 되고 국악의 마이크 사용이 더욱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거문고의 음색들은 소음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거문고의 장점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통음악에서 누리던 백악지장의 존재감이 대중화라는 시험대 위에서 위태롭게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거문고 연주자들은 초기에 거문고의 새로운 주법 및 창작곡의 개발, 악기 개량에 관심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국악에서의 화두는 대중화와 현대화에서 세계화로 그 무게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연구가들과 기획자들은 해외의 공연장과 축제, 마켓 등 많은 기회와 관심이 한국의 전통음악을 향해 열려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해외의 다양한 음악 시장에 국악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새로운 국악이 만들어 지게 된다. 즉 국악의 대중화, 현대화,

8) 17현, 18현, 22현, 25현 등으로 개량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가야금에 비하여 거문고는 악기 자체의 음량을 키우는 방법의 악기 개량이 주로 이루어지다가 화현금 등 거문고의 पे나 현의 수를 늘리는 악기 구조의 개량이 시도되었다. 국악기 개량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특히 거문고의 개량은 국악기 개량의 방향설정에서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전제된 음악이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악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음악은 주로 소규모의 작은 앙상블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신진국악연주자들과 참신한 국악곡을 발굴, 경쟁하는 프로젝트들이 열리고, 전통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음악과 연주자들을 해외 시장에 알릴 수 있는 아트마켓이 자리 잡는 등 해외 시장으로 국악이 진입하는데 매우 중요한 플랫폼들이 형성되었다.⁹⁾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거문고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에 반응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의 국악공연들 속에서 보이는 하나의 흐름이 거문고와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이다. 다른 국악기들에 비해 유독 거문고에 있어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 전자음향과의 접목이 두드러져 보이며 이것은 거문고 음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악앙상블의 장르 확대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악기적인 특성과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음악작품이나 공연이 아니라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연주자(팀)들을 시기별로, 특성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일렉트로닉과의 만남이 작곡가 또는 공연작품보다는 개별 거문고 연주자(팀)들에 의해 시도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음악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 국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과 시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름해보고자 한다.

2) 일렉트로닉을 활용한 시도

이 장에서는 일렉트로닉을 접목한 연주자와 팀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말에 만들어진 전자 거문고에서 출발한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결합은 현

9)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시작된 국악방송의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북촌청우극장의 '천차만별 콘서트'는 신진국악연주자들을 발굴하여 국악계에 또 다른 흐름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05년 시작하여 올해 11년이 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서울아트마켓 "PAMS"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신진연주팀들과 이미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연주자(팀)들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소개하고 진입하도록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까지 진행 중이며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자 거문고 뿐 아니라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또는 다양한 서양악기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기의 활용에서 영향을 받은 까닭이다. 거문고라는 악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음악적으로 변화시킨 예와 하드웨어 자체를 변화시킨 방법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합 형태들이 나타난다.

(1) 전자 거문고의 발명 - 김진희

김진희는¹⁰⁾ 캘리포니아 밀스대학교에서 전자음악과 작곡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9년 캐나다의 조셉 야누지엘로와 함께 전자 거문고를 만들게 된다. 전자 거문고는 외관적으로 거문고의 형태를 띠며, 연주법도 동일하지만 몸통 나무의 재료, 꺾의 위치, 현의 재료 등이 원래의 거문고와 다르다. 이는 거문고 몸통 자체에 픽업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함인데, 전자 기타를 만드는 이치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거문고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다양한 미디 사운드를 구현해 내는데 있어서 마이크를 사용하기보다는 악기 몸통 자체에서 바로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이 잡음이나 사운드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피하고 안정적인 음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 거문고는 미디사운드를 거문고에 접목시키기 위해 악기의 모양과 줄의 재료 등을 바꾸고 픽업장치를 달기 위해 악기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한 뒤 거문고 현의 소리를 MIDI를¹¹⁾ 이용하여 변환시켜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음원들이 거문고를 통해 발현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전자 거문고는 전자 기타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연결하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소리가 난다는 원리에 있어서 기존의 거문고와는 전혀 다르다.

10) 김진희는 국립국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음대 국악과를 졸업했다. 1980년 거문고를 들고 미국으로 유학한 이후 세계 50여 개국에서 다국적의 음악인들과 교류하며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1) 다양한 전자 키보드에 연결되는 '시퀀서' 같은 관련 장치는, 연결된 키보드로부터 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을 내장한 드럼 머신이기도 했다. 본질적으로 MIDI는 상호 연결된 MIDI 케이블로 신시사이저, MIDI 녹음기(하드웨어 시퀀서나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 드럼 머신, 기타 유사한 장비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MIDI의 가장 단순한 구성은 하나의 키보드로 두 악기의 음을 재생하고 통제하도록 두 개의 신시사이저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놀라운 발명품인 MIDI가 없었더라면 지난 25년간 제작된 대부분의 샘플링 전자 음악은 쉽게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전자 거문고를 발명한 이유에 대해 김진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인용 1〉 “거문고는 4세기 악기이고 나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 악기에는 그 시대를 반영한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자 거문고를 만들고 싶었다. 기존 거문고에서 낼 수 없는 소리, 독주로는 불가능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줄을 여덟 개로 늘리고 거문고 명주실, 철사와 핀을 꼬은 명주실, 일본 고토 나일론 줄, 중국 쩡에 쓰는 줄, 첼로 줄을 섞었다. 오동나무 대신 전나무를 사용했고 박달나무 대신 아프리카에서 온 단단한 까만 나무를 쓰고 조각장식도 덧붙였다. 전통 거문고가 유연한 소리로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면 전자 거문고는 규칙적이라 남성적이다.”

『뉴욕 중앙일보』, 2005.10.07

김진희는 전자 거문고를 개발한 이후 ‘한하늘’, ‘다스름’ 등 35개 자작곡을¹²⁾ 발표했으며, ‘거문고’, ‘리빙 톤즈’, ‘거문기타’ 등 10여개의 앨범을 냈다. 카네기 홀, 링컨 센터, 케네디 센터, 로얄 페스티벌 홀(런던), 세계문화원(베를린)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러시아, 아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현대음악 축제와 재즈 페스티벌에서 자작곡과 즉흥연주 공연을 가졌다.

지난 28년간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유럽 캐나다 남미 아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50여 개국에서 낯선 문화와 한국음악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 작곡과 연주뿐만 아니라 코넬대학, 예일대학, 미시간대학,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웨슬린 대학 등 100여 이상 미국 대학교에 초빙강사로 한국전통음악과 자신의 음악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여정을 담은 자서전 『거문고 탕고』가 민속원 출판사에서 출판되기도

12) 주요 연주곡으로는 ‘초상화’, ‘짜랭’, ‘뱀부트립’, ‘THE LOVE OF GODNESS’, ‘토성의 달들’, ‘도드리’ 등이 있다. ‘초상화’는 김진희 자신을 그려낸 곡이며, ‘짜랭’은 거문고 기법 중 짜랭을 많이 응용한 곡이다. ‘매듭풀이’는 한국의 전통매듭공예를 풀어서 개방된 작품을 의미하며, ‘토성의 달들’은 토성의 밝은 도는 달들이 빛어낸 링을 표현하여 물아 상태로 한없이 맴도는 것을 표현한 곡이고, ‘도드리’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

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 현대예술상, 독일 세계 음악극 상(Wolff Ebermann Prize)을 수상했다.

김진희의 음악은 같은 내용의 음악이라도 연주자를 바꾸면서 무대마다 새롭게 즉흥 창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문고 창작음악으로 전통과 현대화, 동서양의 조화, 우리음악의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8년에는 김진희 콘서트(KOUS, 서울)가 한국에서 최초의 단독 첫 콘서트로 열렸다. 최근 ‘고스트 거문고봇 (Ghost Komungobot)’이라는 visual media와의 협업 공연을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창작국악관현악단의 위촉을 받아 작곡 중이며 카자흐스탄의 한국 망명인 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고려사람’의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전자 거문고가 갖는 의미는 최초로 국악기를 전자 악기로 개량하여 음악적인 활동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즉 로컬악기가 전자악기로 재탄생하여 다양한 음악들을 표현해 낼 수 있게 되면서,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악기로 인식될 수 있었다. 전자 거문고의 발명 당시는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시대가 본격화되고, 정보들이 무한대로 공유되면서 국내의 국악계와도 상호 정보의 교류와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전자 거문고 연주자 김진희는 거문고 연주자로서 현재에도 수많은 음악가들과의 협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작곡을 통해 거문고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고 있다. 멀티미디어 아트와의 접목도 지속하고 있는데 거문고가 상징하는 명상의 에너지와 21세기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전자 거문고와 동영상 ‘만다라’를 합친 DVD ‘디지털부대’를 제작하였는데 전자 거문고는 MAX/MSP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다양한 소리의 종류로 작곡된 거문고의 사운드에 비디오 만다라와 연주자 악기와 손 이미지를 컴퓨터로 응용 창작한 후 초속 디지털 이미지를 도입했다.

이렇듯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전자 거문고의 의미는 재료를 바꾸고, 미디어로 연결하여 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냄으로서 음악적인 상상력을 극대화하였고 연주법, 자세, 외형에 있어서는 동일성을 견지하여 거문고라는 악기의 최소한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즉흥연주와 일렉트로닉 기기의 결합 - 허윤정 '거문고 일렉트로니카'

거문고 연주가 허윤정은¹³⁾ 독주악기로서 거문고가 21세기의 음악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한 고민을 여러 방식으로 시도했는데, 주로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음악, 즉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물고 즉흥성을 되살리는데 집중하였다. 즉흥연주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삼는 것에 관심을 두며 이를 작곡가와의 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창작의 기틀로 삼고 있다. 전통음악 뿐 아니라 창작 및 일렉트로닉, 미디어 아트와의 관심으로 다각적인 시도들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일렉트로닉과 협업은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작곡가와의 협업이고 다른 한 축은 허윤정 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곡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동안 허윤정이 작업해 온 일렉트로닉과 거문고의 만남을 정리하여 시기별, 작업의 형태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작곡가와 협업을 통한 거문고+일렉트로닉 기기의 결합 I

2000년 “감(感)”: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허윤정의 두 번째 독주회로 ‘흐은 가락의 자유’, ‘겹질을 깨고’, ‘수면’ 이란 곡에서 처음으로 loopstation이란 기계를 이용하여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영화음악, 무용음악, 대중음악계에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을 해오던 작곡가이자 베이스리스트인 장영규와 협업을 하였다. 거문고로 일정한 패턴을 연주하면 작곡가는 이를 실시간으로 받아 looping(일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하는 것)한다. 이 위에서 거문고가 연주를 하고 앙상블을 만들면 여기에 새로운 패턴의 loop가 쌓이고 겹쳐지는 형식이다. 거문고 자체의 음색을 변화 시키지 않고 여러 대의 거문고가 연주하는 효과를 미니멀하게 표현하는 형태의 곡들이 주된 주제였다. 여기에 improvisation trio'에서 해금, 첼현금, 거문고가 즉흥적으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거문고 음색과 연주법의 확장을 시도한 음악회였다.

13)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전문연주가로서의 경험을 쌓은 뒤 독주자로 활동을 시작, 1995년부터 독주자 혹은 앙상블의 맴버로 활동영역을 개척해 왔다.

② 연주자에 의한 거문고+일렉트로닉 기기의 결합 II

2002년 ‘묵음(默音)’: 거문고 창작 독주곡 초연 음악회이다. 황병기, 이성천, 이건용, 이태원 작곡가의 거문고 독주곡과 loopstation을 이용한 허윤정의 ‘복선’이 초연되었다. 2000년에 발표된 ‘수면’이 즉흥연주에 기반을 둔 소리 만들기와 작곡가와의 협연이었다면 ‘복선’은 정확하게 짜인 루핑을 사용하여 작곡된 작품이다. 거문고는 다양한 음색과 타악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이고 실내악이나 관현악에서는 중저음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문고 독주에서 하나의 악기로 타악기와 저음부의 반주역할, 주선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loopstation을 이용한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¹⁴⁾ ‘복선’은 배음의 리듬들이 점차 쌓여가는 도입부를 시작으로 자유롭게 깔리는 개방현 소리위에서 진양조와 같은 느낌으로 연주되는 주제선율, 중중모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 휘모리장단이 loopstation으로 패턴화 되어 깔리면서 선율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마치 여러 대의 거문고가 연주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몸통을 두드리는 등 타악기적 효과를 looping에 시도한 것도 이전 작품과 다른 점이다. 2002년 ‘복선’을 발표한 이후 loopstation, delay, octave 등 effect pedal을 이용한 거문고 연주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③ 이펙터와 미디의 결합

2008년 거문고 일렉트로니카¹⁵⁾: 이펙터, 미디 + 인터랙션으로 본격적인 일렉

- 14) 그것은 여러 장의 먹지위에 선을 긋거나 점을 찍어 겹치고 겹쳐져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 15)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는 일렉트로닉 뮤직에서 파생된 음악의 한 장르이다. 하지만 일렉트로닉 뮤직과 일렉트로니카는 엄격한 구분 없이 혼동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렉트로니카 뮤지션들은 신시사이저 테크놀로지를 기본으로 한 간단한 리듬의 비트를 도입하여 팝 음악의 전반적인 전자화를 주도하고 있다. 90년대부터는 소리가 좋다면 뭐든지 수용하는 정신에 긍정하며 전통적인 것은 배제하다가 2000년대부터 크로스오버적인 의미로 락, 힙합 등 다른 스타일과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다. 일렉트로니카를 리믹스하는 기본정신은 새로움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편중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에 있다. 큰 분류로 나누어본다면 테크노, 트랜스, 하우스, 드럼 앤 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렉트로니카의 특징은 멜로디보다는 비트를 중심으로 악곡이 전개되며 소리 파형을 변형시켜 만들어진 일정한 패턴이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일렉트로니카의 감상 포인트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와 조화에서 온다.

트로닉 시스템과의 만남을 전면에 내세운 연주회이다. 자연에 가장 가까운 악기인 거문고가 차가운 속성의 전자음향, 전자기계와 만날 때 따뜻하고 푸근한 음색으로 변화되고 거문고만이 가진 독특한 사운드로 변화되는 지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공연이었다. 또한 전자기계들을 또 다른 악기, 연주가로 인식하고 자연스러운 음향과 인공적인 음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변환되는 사운드를 시도하였다. 이 공연에서 두 명의 작곡가와 협업하였는데, 그 중 한명인 미국의 Medelyn Byrne은 “For ANWR -북극야생동물구역을 위하여”를 발표하였다. 인성, 메탈, 스트링, 여러 동양의 타악기들이 샘플링되어 기본 ‘소리’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샘플로써 차용이 불가능한 소리는 인위적인 표본을 통해 음색을 창출하였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이러한 샘플링 된 소리들은 한국의 불교와 토속무가의 종교적 숭고함과 신비로움에 영감을 받아 음악적으로 표현되었고 이것 위에 거문고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표현하도록 구상되었다.

최영준 작곡의 “전동장단 술대를 바라보는 눈”은 interactive 거문고 곡으로 거문고 연주에 컴퓨터가 반응하여 현대적인 장단을 만들어낸다. 전동장단이라는 말은 디지털적인 알고리즘 작곡에 아날로그적 색채를 넣고자하는 소망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장구의 장단 위에 컴퓨터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술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여기에 다시 거문고의 선율이 얹히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이외에도 허윤정의 창작으로 ‘낮선 규칙’, ‘歌’, ‘Multi Road’ 등의 거문고 독주곡이 다양한 effect pedal을 이용하여 연주되었는데, 허윤정이 작곡하고 즉흥 연주를 한 4개의 곡 ‘Wave’, ‘길’, ‘歌’, ‘낮선 규칙’은 소리의 곡선과 거문고의 현의 곡선, 농현의 곡선 등을 loopstation과 delay 페달을 이용하여 만든 곡들이다. 특히 장단놀음이 가능한 거문고의 타악적 특성을 페달을 이용한 리듬패턴 만들기로 쌓아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다.

④ 앙상블에서 거문고와 일렉트로닉의 결합

2012년 ‘Black String’ : 블랙스트링은 거문고 즉, 玄琴을 뜻하는 말로 거문고 음악의 확장과 전통음악의 경계를 넘나들고자하는 4인조 앙상블이다. 2012년

한국, 영국의 문화교류를 기념하는 UK connection의 일환으로 영국의 재즈 연주자 4명과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 2명, 한국의 재즈연주자 1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공연이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유럽공연 후 향후 지속적인 활동에 뜻을 같이한 한국 연주자 4명이 블랙스트링이라는 이름으로 결성하였는데, 거문고, 대금, 타악기, 기타로 구성되었다.

블랙스트링은 거문고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 즉 음색적이고 역동적이며 타악적 특성을 지닌 파워풀함, 이와 동시에 사상적, 철학적인 영감이 투사된 거문고의 중용의 매력을 팀 사운드로 확장시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팀이다.¹⁶⁾ 블랙스트링의 음악에서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연주기량과 아날로그적 영감을 다양화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페달을 사용하는 일렉트릭 기타와 더불어 대금과 거문고 역시 effect pedal을 사용하여 국악기와 어울리는 전자음향의 음색과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2106년에는 블랙스트링의 활발한 해외활동과 음악적 독창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 음반사 ACT에서 5매의 정규앨범 계약을 제안하여 2016년 10월 “Mask Dance”(ACT, 2016)가 세계 음반시장에 동시 발매 되었다.¹⁷⁾

⑤ 컴퓨터 미디어+이펙터+미디어아트 인터렉션

2017년 창작산실 프로젝트 “허윤정의 거문고 Space”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운 공연 양식과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선정하는 창작산실 프로젝트에서 2016년 선정되어 2017년 3월에 공연 하게 될 “허윤정의 거문고 Space”는 거문고 솔로 융복합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effect pedal을 사용하여 자연 거문고 음향

16) <연주곡> “칠채”, “Growth Ring”, “Mask Dance”, “당당당”, “낮선 달”, “흐르는.. 떠가는”, “신노래” 등.
 17) 2012 런던 재즈 페스티벌 초청공연, 폴란드 재즈 토폴즈 초청공연; 2013 말레이시아 페낭 재즈 페스티벌 초청공연, 노르웨이 오슬로 월드뮤직 페스티벌 초청공연; 2014 서울 아트마켓 팜스 초이스 선정, 자라섬 인터내셔널 재즈 페스티벌 초청공연, 독일 베를린 문화원 초청공연; 2015 인도 3개도시 투어 (Chennai, Kolkata, Kochi), 스웨덴 Clandestino Festival 초청공연, 포르투갈 Casada Musica 초청공연; 2016 프랑스 재즈 샬레 포미에 Jazz sous les Pommiers 초청공연, 대만 타이쥙 재즈페스티벌 초청공연 Taichung Jazz Festival (Taiwan), 스페인 WOMEX 16 공식 쇼케이스 선정.

을 보조적으로 확대, 음색을 변환시키고 이를 통해 앙상블의 독특한 사운드를 모색하는 것에 더하여 컴퓨터 MIDI 사운드가 결합된다. 여기에 interactive media art와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미디어 아트 그룹 “ADHD”와 콜라보레이션하게 된다. light space라 불리는 라이트닝 설치물과 거문고 연주가 상호 반응하며 거문고의 역사성과 정체성, 전통과 현대적 음악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흐르게 된다. 거문고 소리가 컴퓨터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를 통해 우주의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다양한 음악 언어들로 재해석되어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가장 아날로그적인 거문고 자연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동양적인 미디어 인터랙티브 작품을 구현하고자 한다.¹⁸⁾

허운정의 작업은 악기를 변형하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생성되는 기존 연주의 매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이를 전자 페달 또는 컴퓨터 미디어와 연결함으로써 악기의 고유성은 살아 있되 만들어 낼 수 있는 음향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다른 장르와의 결합으로 이끌어내어서 미디어 아트와의 융복합 작업으로 확대 시키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3) 최초의 전자 거문고 앙상블 - ‘거문고 팩토리’

전자 담현금,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거문고 연주자 3명과 가야금 연주자 1명으로 구성된 월드뮤직 앙상블 거문고 팩토리¹⁹⁾는 2006년, 거문고를 통해 무한한 창작과 전통음악의 발전을 위해 만든 모임이다. 거문고 악기의 장단점을 살려 현대의 젊은 소리를 찾기 위해 첼로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전자 담현금 등 악기개량과 작곡을 해오고 있다. 거문고 팩토리는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듯 거문고를 소재로 어떤 음악이든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에 걸맞게 잊힌 옛 산조 가락을 채보하고 복원해 악보와 음반을 내는가 하면, 현대 젊은이들의 감성과 어울릴 수 있는 퓨전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에 접근한다.

18) 2017년 3월 3일~5일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작품이다.

19) 2006년 창단 당시 거문고 연주자로는 이정석, 유미영, 정인령이었고, 가야금 연주자로는 김선아였다.

거문고 팩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엑스포인 위멕스(WOMEX)에 2012년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이 되면서 그들의 작품성과 실험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후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 유럽 전역을 돌며 공연했다.²⁰⁾

거문고 팩토리는 긴 거문고를 1m 길이로 자른 후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전자 거문고 등으로 개량해 연주한다. 거문고를 음정이 있는 유율 타악기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가야금, 첼현금과 협주를 통해서 거문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한다.²¹⁾

퓨전 국악 밴드 대부분이 일반적인 밴드 음악의 편성(키보드, 드럼, 베이스, 기타 등)위에 해금, 대금, 가야금 등 국악기가 추가되어 선율을 담당하는 식이었다면, 거문고 팩토리는 거문고를 자체를 개량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 이후, 2013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K-MUSIC FESTIVAL 단독공연에서 영국 주요 언론사 LONDON EVENING STANDARD에서 최고평점을 받았으며, 현재

20) 거문고 팩토리는 세계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였다.

〈국내 공연〉

2014년 3월 정규 2집 콘서트 〈IMAGO〉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014년 11월 〈나를 미치게하는 거문고클럽〉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2014년 12월 〈나를 또! 미치게하는 거문고클럽〉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2015년 7월 〈THE 수상한 거문고 클럽〉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해외 공연〉

2010년 12월/ 브라질 (Mercado Cultural) 공식초청; 2012년 10-11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외 유럽 7개국 투어공연; 2012년 10월/ 그리스세계최대 월드뮤직 마켓 〈WOMEX〉 쇼케이스 공식초청; 2012년 11월/ 폴란드 〈Jazz to Pad〉 공식초청; 2012년 12월/ 콜롬비아 〈Mercado Cultural〉초청; 2013년 6월/ 스웨덴 〈Sommarscen Malmo Festival〉공식초청; 2013년 6월/ 영국 런던 〈K-MUSIC FESTIVAL〉 공식초청 런던 카도간홀 단독 공연; 2013년 7월/ 네덜란드 〈Amsterdam Roots Festival〉 공식초청; 2013년 7월/ 덴마크 〈Roskilde Festival〉 공식초청; 2014년 6월 / 마케도니아 〈OFF-FEST〉 공식초청; 2014년 6월 / 스웨덴 〈Clandestino Festival〉공식초청; 2014년 7월 / 캐나다 〈Sunfest〉 〈Winnipeg〉 〈Vancouver〉 〈Calgary〉 Festival 초청; 2015년 8월 / 캐나다 〈Regina Folk Festival〉 공식초청; 2015년 9-10월 / 유럽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4개국 5개 도시 투어.

〈약력〉

2010 KBS 국악대상 연주단체 부문; 2010년 / 서울 2010 서울아트마켓 국립극장 〈PAMS Choice〉 공식 쇼케이스 선정; 2011년 / PAMS 월드뮤직 전문가교류 프로그램 〈Journey to Korea Music〉 선정; 20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2014 이태일리 음악부문 대상출처: 거문고 팩토리(작성자: 아당향).

21) 연주자 네명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루며 음악에 다양성을 부여한다.

-정인령 : 거문고, 전자 거문고,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작곡; -유미영 : 거문고, 담현금, 전자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글로켄슈필, 톱 악기, 보컬, 작곡; -이정석 : 거문고, 담현금, 전자 거문고, 퍼커션, 보컬, 작곡; -김선아 : 가야금, 철가야금, 양금,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작곡

까지 북유럽 최대 락 페스티벌인 덴마크 로스킬레 락 페스티벌 공식초청을 비롯하여 세계 11개국 투어 및 정규 앨범 〈Metamorphosis〉, 〈IMAGO〉를 발매했다.²²⁾

거문고 팩토리의 레퍼토리들에서는 전자 거문고에서 개량된 사운드로 다양한 음색과 특성을 각각의 거문고에 구현시키고 있다. 거문고 팩토리의 공연 리뷰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문고의 머리 부분도 악기의 요소로 만든 전자 거문고로 연주한 ‘Black Bird’의 도입부는 마치 속이 빈 큰 나무둥치를 치는 것같이 넓고 웅장하게 퍼지는 전자 거문고의 소리를 만들어 낸다. ‘지리리리루’를 통해 시원시원하게 뿜어 나오는 거문고의 청(淸)음, 맑고 곧게 울리는 가야금의 소리, 활의 움직임에 따라 내질러지는 첼로거문고의 소리, 우주 속을 유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전자 거문고의 소리, 그리고 얇고 곧은 직선으로 날카롭게 뿜어 나오는 첼현금의 소리까지. 모두 현에서 나는 소리지만 그 음의 느낌과 부피감이 모두 제각기 다르게 만들고 있다.

거문고의 큰 매력은 유율현악기이면서도 타악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가야금은 한 손으로 줄을 뜯거나 튕겨 소리를 내고, 다른 쪽 손으로는 줄을 눌러 주어 울림이나 떨림을 조절해 연주한다. 두터운 거문고의 ‘현’이 줄 수 있는 느낌을 극대화해 개량한 것이 첼로거문고, 그리고 타악 느낌을 살려 개량한 악기는 전자 거문고이다. 술대가 아닌 활을 잡고 연주하는 첼로거문고는 소리의 부피감과 밀도를 조절하는 것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활과 움직임과 현의 마찰정도에 따라 음들은 얇고 넓게 퍼뜨려지기도 하고, 얇은 소리지만 현을 거칠고 강하게 마찰시켜 그 안에 음색과 깎슬깎슬한 느낌을 가득히 압축해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묵직하면서도 넓은 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리뷰] 2014.11.15. 홍대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공연

22) 〈주요 레퍼토리〉 - Black Bird - 거문고 & 탱고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정중동 - 지리리리루. 〈음반〉 2008 잊혀진 거문고 산조의 명인들; 2009 EP 앨범 - Geomungo Factory; 2010 정규 1집 - Metamorphosis 변신(變身), 변태(變態), 탈바꿈; 2014 정규 2집 - IMAGO.

〈나를 미치게 하는 거문고 클럽〉 피자 울-

거문고 팩토리는 악기자체를 변형하고 픽업을 부착한 점에서 김진희의 전자 거문고와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거문고를 첼로처럼 연주한 다던지 실로폰처럼 연주하는 등 악기의 연주법에도 변화를 주어 여러 가지 역할의 거문고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협업을 위한 시도+다양한 연주법을 응용 -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 예술인에 선정, 거문고, 무용음악 감독, 작곡가로 활동하는 박우재는 거문고를 술대가 아닌 활로 연주하거나 하모닉스만으로 연주하는 등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과 연주법을 선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²³⁾ 2014년 참가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독창적이며 동양적인 프리재즈의 명인 색소포니스트 강태환과 함께 연주하였는데 여기에 박우재가 지닌 현대적 감각과 새로운 시도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었다.

무용, 비디오아트 등과 함께 하는 다원 예술에도 다수 참여하면서 전통음악과 현대의 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유럽에서의 활동으로 안무가 시디 라르비 웨르카위의 무용단에 뮤지션으로 소속되어 유럽투어를 해오고 있으며, 매번 다른 뮤지션들이 모인 팀으로 1년에 5개의 작품으로 투어를 돌고 있다. 홍승엽, 김남진 등의 안무가와도 협업하며 무용 음악에서의 거문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연주자이다.

활대를 사용한 주법, 거문고 스트로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김병극 사운드엔지니어와의 협업으로 멀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이다. 2014년에 앨범 〈Extention〉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독주자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앨범의 제목과 같이 거문고의 경계를 확장하고자하는데 의미를 둔 앨범이다. ‘이상변이’, ‘블

23) 〈약력〉 2010 바람꽃 동인; 2013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이상변이〉 공연 (서울역 TRTO 공연장); 2014 박우재 거문고 더하기 〈Extention〉 앨범 발표; 세익스피어 〈각자의 시선-소네트 18〉 정가 박민희 무용가 장홍석; 2015 〈소셜 씨어터 부벽정〉.

루레인', '수동', '표류', '목소리와 거문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2015년에는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 <소설 씨어터 부벽정>의 음악을 맡았다. 가상의 극장을 만들어 텔레마틱 아트를 구현한 작품으로 무용, 연극, 마임, 사운드 아티스트 등이 참여한 융복합공연이다.

협업에 있어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다양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우제의 활동은 거문고 독주자로서 연주와 작곡, 나아가 사운드 메이커의 역할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렉트로닉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은 다른 장르와의 협업에 있어 가장 좋은 장치가 되며 이를 통해 거문고리는 악기의 가능성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5)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 - 강력한 밴드 악기로 전환 '잠비나이'

앞서 거문고 연주자에 의한 독주 악기로서 일렉트로닉을 활용하는 예와 거문고 앙상블의 사운드를 일렉트로닉의 결합으로 모색하고 있는 경우를 소개했다면 잠비나이는 거문고리는 악기가 새로운 장르의 밴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과 가능성을 가진 악기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팀이다.

잠비나이는 국악기를 기본으로 하는 밴드이다. 피리(이일우), 해금(김보미), 거문고(심은용)의 트리오에 드럼과 베이스기타가 합류하여 5인조 밴드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²⁴⁾ 잠비나이의 처음 시작은 피리(기타), 해금, 거문고의 국악기로만 된 3인조 그룹이었다. 흥대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던 팀으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신진국악 실험무대 <천차만별 콘서트>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잠비나이는 2012년 PAMS Choice에 선정되면서 2013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세계최고의 음악 마켓 중 하나인 월드뮤직엑스포(WOMEX)를 통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음악시장에 진출했다. 위맥스 쇼케이스의 성공과 유튜브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24) 자신의 악기외에도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일우(기타, 피리, 태평소, 생황), 김보미(해금, 트라이앵글), 심은용(거문고, 징주).

알려진 인지도를 기반으로 이후 2년간 글래스톤 베리(영국), 로스킬데(덴마크), 엑시트(세르비아), 프리마베라 사운드(스페인), 워매드(호주, 영국), 팔레오(스위스), 헬페스트(프랑스) 등 세계 주요 페스티벌 무대에 이름을 올리며 꾸준하게 활동 중이다.²⁵⁾

잠비나이의 음악을 잘 설명하고 있는 평론 중 하나를 소개하겠다.

“잠비나이를 장르로 얘기하자면, ‘포스트록(Post-rock)’이다. 그간 한국에서 록그룹의 연주에 태평소와 같은 강렬한 메탈사운드가 합쳐진 적도 있었다. 언뜻 생각하면, 잠비나이가 다루는 세 개의 악기는 록에 전혀 적합한 악기가 아니다. 잠비나이는 세 악기 간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독특한 그들만의 사운드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의 록팬을 열광시켰다. 한국의 민속악기가 록음악의 하나의 돌피구를 제시한 셈이다. 이들은 기존의 퓨전국악팀들이 지향했던 ‘국악의 대중화’를 생각지 않는다. 더불어 그들의 음악을 ‘국악’이라고 불리는 것도 때론 불편해 할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하는 거다. 그 수단으로서 국악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잠비나이와 같은 음악을 뭐라 해야할까? 포스트 국악(Post-gugak)이라고 불러야할 것이다. 잠비나이를 해외에서 민속음악에 기반한 포스트록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의 음악에는 기존의 음악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전향적 자세가 돋보인다. 기존의 퓨전국악에서처럼, 서구의 장르를 경외하거나, 서양악기를 모방하려는 방식과는 크게 거리감이 있다. 무엇보다도 국악기를 새롭게 다루려는 의지와 성과가 있다. 이들은 전통적 연주를 마스터했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한다. 이들이 중시하는 건 구성원들과의 음악적 시너지다.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과 가능한 차별화되길 원한다. 그들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중시한다. 잠비나이가 여러 장르의 음악을 두루 거친 외국의 청중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요인이다. 관객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성과가 그들의 음악에서 발견된다. 그들의 음악을 포스트국악(Post-gugak)

25) <소속사> GMC 레코드.

<데뷔> 2010년 EP 앨범 [잠비나이].

<수상> 2015년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특별상.

2013년 제10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음반상.

이라 하게 될 때, 그들은 국악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의 장르로 구축되면서, 한국음악 혹은 한국악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실험이 앞으로 더욱더 자유스럽게 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다.” 2016. 파운드 매거진

잠비나이의 음악에서 거문고(심은용)는 마치 락 밴드의 베이스보다 더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며 존재감을 만들고 있다. 마이크를 통해 페달에 연결되어 강력해진 거문고 사운드 위에 꽤를 타악기처럼 굽는 퍼포먼스와 거칠면서도 무게 있는 음색으로 잠비나이의 음악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음향의 확성을 악기에 맞게 극대화하여 거문고를 또 다른 한국적 타악기 및 베이스의 역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다. 이는 거문고라는 악기가 밴드 또는 소규모 앙상블에서 다른 어떤 악기보다도 선호되고 있는 현재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⁶⁾ 즉 악기의 모양과 주법은 같으나 철저하게 일렉트로닉적인 사운드를 지향함으로써 베이스 기타를 대체할 수 있는 밴드악기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잠비나이의 음악은 국악기의 흐름에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을 얹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만들어 낸다. 동서양악기의 이질감이라는 것은 오히려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좋은 재료이다. 이는 낯설면서 동시에 친숙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해외에서 잠비나이에 열광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0년 첫 EP <잠비나이>로 데뷔한 이후 2012년에 정규 1집 <차연(Difference)>, 2016년 6월에 정규 2집 <은서(A Hermitage)>를 차례로 발매했다. 지난 6월 17일 전세계 동시 발매된 잠비나이의 정규 2집 ‘A HERMITAGE(은서; 隱棲)’는 발매와 함께 ‘Q Magazine’, ‘UNCUT’, ‘MOJO’, ‘The Quietus’ 등 유력 음악지로부터 평균 점수 10점 만점 대비 8점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주목 받았다. 특히 ‘MOJO’는 앨범 발매 전부터 잠비나이를 ‘이달의 라이징 스타’로 선정하며 높은

26) 본고에서는 일렉트로닉과의 결합만을 다루고 있기에 소규모 앙상블이나 밴드편성의 그룹에서 거문고가 선호되고 있는 경향에 대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미 잠비나이는 지난해 11월 영국의 유력 음반사 벨라유니온(Bella Union)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발매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뮤지션들의 글로벌 음악시장 진출의 또 다른 장을 열었다.

또한 영국 유력 음악 매거진 ‘더 콰이어터스(The Quietus)’ 선정 ‘2016년 상반기 TOP 100 앨범 리스트’에서 15위를 차지했다. 잠비나이는 리스트에서 15위에 오르며 데이빗 보위(2위), 라디오헤드(29위), 켄드릭 라마(31위), 카니예 웨스트(44위)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됐다. 2014년부터 미주, 유럽, 남미의 14개국 38개 도시를 돌며 56회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해외활동을 해오고 있는 잠비나이는 2집 앨범을 가지고 또 다시 2달간의 유럽 투어 중이다.

3. 결론

20세기 이후 거문고의 실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거문고 창작곡에서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많은 연주기법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좋은 명곡들이 발표되었다. 전통음악 내에서는 무용반주음악이나 대풍류와 같은 관악곡을 거문고로 편곡하고 굿 음악 등 민속음악에서의 쓰임새를 늘려가며 레퍼토리를 확장해 오고 있다. 또한 최상의 음질을 내기 위한 악기구조의 보완과 음량의 확대, 음역대를 넓히는 등 악기 자체의 개량도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의 흐름 가운데 거문고와 일렉트로닉, 멀티미디어와의 협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거문고는 독주악기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음역대로 인해 반주와 독주가 가능하며, 타악적인 특성이 강하여 이로 인해 강력한 리듬을 만들어내기 좋은 악기이고, 음색이 다양하여 독특한 주법 개발이 용이하며, 무대에서 연주 시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악기와 협업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유리한 장점이라는 것인데 다양한 음악가, 예술 장르와의 협업은 거문고 음악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공연계에서는 만나고 섞

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들이 쉴 사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문고의 특성들은 일렉트로닉과 만났을 때 더욱 다양한 변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신이 본론에서 소개하였듯이 국내는 물론 해외의 우수 공연장과 페스티벌, 음반사 등 음악시장에 어필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낸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물론 공연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였으며 거문고가 마이크를 쓰면서 얻게 된 부정적인 효과를 어쿠스틱이 아닌 전자음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져 온 긍정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일렉트로닉과 거문고의 결합은 연주자와 시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활동 배경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렉트로닉과 거문고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음악의 장르에 따라 또는 공연장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악기에 맞는 amplifier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인 국제교류의 플랫폼들이 열리고 이를 통해 국악의 세계화 최전선에 소규모의 독창적인 국악양상블과 독주자들이 활약하면서 개별성이 강한 음악들과 연주자들이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거문고라는 악기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한 일렉트로닉과의 결합은 유의미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악기의 변화를 통해 발생된 음악적 변화는 타 국악기에 비해 독특하고 다양한 음색을 지닌 거문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켰고 국악양상블의 악기편성 및 음악장르 역시 다양화되면서 협업 방식의 외연이 확장되어가는 추세를 가속화 시켰다. 이는 다시 거문고의 실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

즉, 거문고 연주자들이 변화된 시대적, 음악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렉트로닉과의 결합을 시도하였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정체성의 획득과 외연의 확대, 음악장르의 생산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21

세기 거문고 음악 실험의 한 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좋은 창작곡과 주법들을 만들어내어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면서 악기의 가능성을 확장시켜나가는 한편, 여기에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많은 장치들 즉 보편적으로는 마이크를 포함, 컴퓨터 시스템과 다양한 이펙터들과 음악적으로 결합하여 원래의 거문고에서 만들어진 좋은 콘텐츠들을 활용하면서 거문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다른 대안 역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 음향의 거문고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천변만화의 음색들을 개발하고 이를 일렉트로닉과 접목하여 독주악기로, 앙상블 악기, 협업에 강한 악기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거문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문고 연주자들이 독주자로서 또 앙상블의 일원으로 거문고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실험해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통해 거문고가 21세기 음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다른 도전을 추동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거문고의 정통한 주법과 깊이 있는 연주력, 창작력, 음악적 콘텐츠의 다양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렉트로닉의 활용은 공허함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감동을 주는 음악은 악기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높은 수준의 연주력과 연주자의 진정성이 살아있을 때 빛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창의적인 상상력과 독창성이 가미된다면 거문고와 전통음악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ABSTRACT】

Encountering with *Geomungo* and Electronic Devices

Heo, Yoon-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mungo (6-string zither) is the representative Korean string instrument along with Gayageum (12-string zither). It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had a special status in the traditional music realm, and it contributed to transmitting traditional music and developing new music in the 20th century. It has been experimenting in various ways throughout the 21st century, developing diverse playing techniques in new music and extending its usage in traditional music. In addition, the instrument itself has been modified in various respects; its structure has been complemented to maximize sound quality and its volume has been expanded. Among many experimental attempts, it is remarkable that *Geomungo* has been working with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computer and electronic sound. It is also notable that the activity background and musical effect of collaborative works is connected by one flow even if its forms and methods are independent.

Geomungo has world-class competitiveness as a solo instrument; the harmony of high and low range makes it possible to play as both an accompaniment and solo; its strong percussive character and various timbres allow it to easily develop playing techniques; in addition, it can present colorful performance on stage. These aspects are very effective in collaborating with other musical instruments and also very important in expanding the activity area of *Geomungo* music. *Geomungo*, which, despite these advantages, was in a relatively unfavorable condition due to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use of microphones, has developed as the alternative of improving its competitiveness since the amplification system more suitable for Geomungo was develope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is paper illustrates that the performers and groups involved in creating new music and playing techniques through working on Geomungo with the electronics have been producing good musical contents actively utilizing the electronic system such as microphones, computers, and various effecters while preserving the "originality" of Geomungo. This collaborative work creates a positive result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Geomungo as a solo, for an ensemble, or for collaboration in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market, by emphasizing and diversifying the advantages of Geomungo.

It seems to be very meaningful that Geomungo encounters with the electronic devices in the early 21st century when small traditional Korean music ensembles and soloists are active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stage since the platform of international exchange has been opened, and thus Geomungo with strong personality has begun to be recognized for its competitiveness.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s remains empty as long as Geomungo players are not backed by legitimate playing techniques, deep playing skills, creativity, and the diversity of musical contents. After all, music can be bright enough to move audiences when the unique identity of its instrument, the high level of the performance, and the authenticity of the performers are alive.

【Keywords】 *Geomungo*, electronic, experiment, amplification, globalization